

1997. 4. .

'97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서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충 주 시 의 회

'97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서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이탈리아 티볼리시의회 의사당에서 연수단의 모습)

머 리 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대두로 우리 의원들은 충주도약 발전의 기틀을 착실히 다지기 위하여 22 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서, 사명을 가지고 항상 연구하고 창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우리의원 7 명은 제 3 기로 선진 유럽 4 개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를 '97. 3. 26 - 4. 4 일까지 9 박 10 일간 방문하여 지방자치 및 의회분야, 환경분야, 사회복지분야, 관광분야 등에 대해 연수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자료를 얻기 위하여 우리 연수단은 수차에 걸친 간담회를 통한 사전에 대상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연수분야 별로 착안사항을 작성 대상국을 방문시 질문을 통하여 자료를 얻었으며, 다소나마 의사를 소통할 수 있도록 생활영어회화 교재를 제작 숙지하였고, 방문시에는 현지 안내인의 안내로 의사 소통에는 불편한 점이 없었으며 연수 후에는 보고 느낀것을 분야별로 소감문을 작성하여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 보다 많은 자료를 얻어보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시간에 쫓기고 언어와 생활방식 차이 등 짧은 기간동안 그들의 의식구조를 평가하기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번 연수결과 보고서가 다소 미흡합니다만 우리시의회 발전과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997. 4.

연 수 단 일 동

목 차

I. 연 수 개 요

1. 연 수 의 필 요 성
2. 연 수 목 적
3. 연수대상국 및 기간
4. 분 야 별 담 당
5. 연 수 일 정

II. 연 수 대 상 국

1. 영 국
2. 프 랑 스
3. 스 위 스
4. 이 탈 리 아

III. 분야별 연수 내용

1. 의 회 분 야
2. 환 경 분 야
3. 사회복지분야
4. 관 광 분 야

IV. 연 수 소 감

V. 시정 건의 사항

VI. 끝 맺 는 말

☞ 사 진 첩

I. 연 수 개 요

1. 연수의 필요성

-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대두로 지역은 한 나라안의 지역의 개념을 떠나 세계 속에서 지역의 위치와 역할을 요구하므로 앉아서 언론매체의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넓은 세계에 나가 직접보고 느낀 것을 우리 시정 시책에 보완 발전시키고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 선진 유럽이 우리보다 어떻게 앞서 나아가고 있는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운영실태등을 현장에서 확인, 우리와 비교, 우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서 충주 도약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짐.

2. 연 수 목 적

- 선진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연구 창조하는 의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므로 선진 유럽의
 - 지방자치제도 운영 실태와
 - 환경분야, 사회복지분야, 관광분야의 발전 방향을
 - 선진 유럽을 방문 직접보고 비교하여 의원의 견문을 넓혀 정책 결정에 기여하기 위함임

3. 연수대상국 및 기간

- 연 수 기 간 : '97. 3. 26 ~ 4. 4 (9박 10일)
- 연수 대상국 :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4. 분야별 담당

구 분	직 위	성 명	연 수 분 야	비 고
총 괄	부 의 장	이학영	총 괄 지 위 인 솔	연수단장
분야별 의 원	의 원	권용훈 김관수	의 회 분 야	
		권순옥 권오찬	사회복지 및 관광분야	
		최용태 김대식	환 경 분 야	
수 행 공무원	행정4급 (사무국장) 별정5급 (전문요원) 기능10등급	이 청 민영섭 오석봉	연수내용기록	
취 재 기 자	충청일보 중부매일	박준범 서인석	연수내용 취재	

5. 연 수 일 정

월 일	장 소	교통편	시 간	주 요 내 용
제 1 일 3월 26일 (수)	서 울 영 국 (런던)	KE 907기 버 스	14 : 40 (한국시간) 18 : 20 (런던시간) 21 :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출발(김포공항) · 런던도착(히드로 공항) · 호텔도착 (BRITANNIA HOTEL)
제 2 일 3월 27일 (목)	영 국 (런던)	버 스	09 : 00 14 : 00 15 : 00 18 :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시설 방문 경로수녀회 (Little sister of the poor) · 하이드로 파크공원에서 휴식 · 대영 박물관 탐방 · 숙박(BRITANNIA HOTEL)
제 3 일 3월 28일 (금)	영 국 (런던) 프랑스 (파리)	버 스 BD 185기 버 스	10 : 00 14 : 00 19 : 30 20 : 15 21 :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웨스트민스터사원 및 버킹검 탐사 · 시가지 견학(광장, 도로, 교통) · 런던출발(히드로 공항) · 파리로착(찰스드골 공항) · 호텔도착 숙박 (RENAISSANCE HOTEL)
제 4 일 3월 29일 (토)	프랑스 (파리)	버 스	09 : 00 10 : 00 14 : 00 16 : 00 20 : 00 22 :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폴레옹 전승탑 탐사 · 문화유적지 탐사 (노틀담사원, 제로포인트) · 하수도 처리장 방문 · 루부박물관 탐방 · 에펠탑 및 세느강 야간 관광 · 숙박(RENAISSANCE HOTEL)
제 5 일 3월 30일 (일)	프랑스 (파리)	버 스	09 : 00 14 : 00 16 : 00 17 : 00 18 :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르사이유궁 탐사 · 문화유적지 탐사 (몽마르뜨언덕, 성심성당) · 공원묘지 탐사 · 연수 중간점검 및 토론 · 숙박(RENAISSANCE HOTEL)

월 일	장 소	교통편	시 간	주 요 내 용
제6일 3월 31일 (월)	프랑스 (파리)	버 스	09 : 00	· 시가지견학(개선문, 상제리거리, 마로니에 가로수, 도로물청소)
			11 : 30	· 양로원 방문(HOTELIA)
			14 : 00	· 킵상브르 공원에서 휴식
			15 : 00	· 시가지 견학(광장, 도로, 교통)
	스위스 (쥬리히)	SR 709기	20 : 45	· 피리출발(찰스드골 공항)
			21 : 45	· 쥬리히도착(쥬리히 공항)
		버 스	22 : 00	· 숙박(MOVENPICK HOTEL)
제7일 4월 1일 (화)	스위스 (쥬리히)	버 스	09 : 00	· 쥬리히시 쓰레기 소각장 견학
			14 : 00	· 루체른 빌라투스산등정
			16 : 00	· 루체른 시가지 견학(카펠교, 공기오염측정기, 사자상)
			18 : 00	· 숙박(MOVENPICK HOTEL)
제8일 4월 2일 (수)	스위스 (쥬리히)	SR	10 : 00	· 쥬리히 출발(쥬리히 공항)
	이탈리아 (로마)	3602기	11 : 30	· 로마도착
			14 : 30	(레오나르도다빈치 공항)
			15 : 30	· 호텔도착 짐 맡김 (TORRES ANGELO HOTEL)
			18 : 00	· 티볼리시의회 방문
				· 숙박(TORRES ANGELO HOTEL)
제9일 4월 3일 (목)	이탈리아 (로마)	버 스	09 : 00	· 바티칸 박물관 및 베드로 성당탐방
		KE 918기	14 : 00	· 문화유적 탐사(원형경기장, 대전차 경기장, 트레비 분수)
			16 : 00	· 시가지 견학(강장, 도로, 교통)
			22 : 00	· 로마출발
			(로마시간)	(레오나르도다빈치 공항)
제10일 4월 4일 (금)	서 울		15 : 30	· 서울도착(김포공항)
		버 스	21 : 30	· 충주도착 귀가

II. 연 수 대 상 국

1. 영 국

□ 일 반 현 황

- 공식 국명 :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 면 적 : 24만 4천 km²
- 인 구 : 5,300만명(런던 700만명)
- 공 용 어 : 영 어
- 종 교 : 영국 국교회(성공회)
- 화폐 단위 : 파운 드
- 1인당 GNP : 20,000\$

□ 역 사

- 영국은 유럽 대륙의 북서쪽에 위치한 섬나라로서 대륙과는 도버해협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음.
-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대륙의 전쟁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할 수 있으며, 일찌기 빅토리아 여왕시대에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으며,
- 해외에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성은 옛것을 소중히 여기는 보수적임.

□ 시가지 모습

- 시가지 주변의 건물은 고딕형으로 대다수 5층 이하로 되어 있고 도로는 비교적 좁은 형태로 일방통행하는 소방 도로가 많이 개설되어 있으며 전화 전기선이 지상에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차량은 소형차가 대부분이며 시내버스는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며 경적을 울리는 차는 한대도 발견할 수 없음.
- 횡단보도 중앙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신호를 잘 지키지 않으나 차가 사람이 다 건너갈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인상적이며, 거리에는 교통순경이 눈에 띄지 않음.
- 광장이 많으며 상점 간판은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것이 대다수이며, 거리에는 사람이 많지 않고 한산한 편임.
- 휴지나 담배꽂초와 개의 배설물이 노상에 많아 거리가 지저분하다고 생각이 드나 아침에 청소원이 말끔히 치우고 있었음.

□ 기 타

- 옛것을 잘 보존하려고 하는 보수성이 강하므로 새집 보다 오래된 헌집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함부로 길을 확장하는 일이 없음.

- 런던시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여 공해가 적을 뿐 아니라 안개와 스모그 현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이 맑으며 옛날에는 이 스모그 현상을 안개로 생각하였다 함.
- 런던 중심을 흐르고 있는 템즈강이 깨끗하고 오물이 떠내려 오는 것을 볼 수 없으며, 런던 중심부에 현재 “시티”라 부르는 지구로서 약 2천년전 로마인에 의해 건설된 상업의 중심이 되어 세계의 경제를 움직였던 곳으로 옛 로마인의 건물은 없지만 은행이 많이 들어서 있음.
- 시민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인 공원이 많으며 호텔 욕실에 물이 빠질 수 있는 하수구가 없고 욕조 안에만 있으며 시민들의 옷차림은 검소함.
- 산과 계곡이 없어 산수가 수려하지 않지만 관광지를 별도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옛것을 잘 보존하고 자연경관을 적절히 이용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2. 프랑스

□ 일반 현황

- 공식 국명 : 프랑스 공화국
- 면 적 : 54만 7천 km²
- 인 구 : 6,000만명(파리 1,000만명)
- 공용어 : 프랑스어
- 종교 : 카톨릭교
- 화폐 단위 : 프 랑
- 1인당 GNP : 24,000\$

□ 역사

- 삼면은 영불해협, 대서양, 지중해에 면하며 다른 삼면은 역사상 큰 역할을 해 온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유럽 문명의 십자로”라는 말을 들어왔고 항상 그 중심이 되어 왔음.
- 16세기 부르봉 왕조대에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여 루이 14세시대인 17세기 후반에는 그 세력이 크게 확장 북아메리카에까지 넓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음.
- 시민과 농민들이 1789년에 반란을 일으켜 승려들과 귀족을 몰아내고 공화정치를 선포하였음.
- 유럽에서 가장 농업이성한 나라로 국민성은 화려하고 유행을 좋아하는 낙천적임.

□ 시가지 모습

- 가로수가 많고 위로 자라는 대로 놔두었으며 도로는 런던과 마찬가지로 그리 넓지 않고 도로 형태는 곧게 뻗어 있으며, 소방 도로는 일방통행로가 많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방 도로가 없으며 전기 전화선이 지상에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도로변의 집은 고딕형으로 벽은 흰색이고, 지붕은 검은 색으로 되어 있으며 차량은 소형차가 많고 도로변과 인도 사이에 간이 주차장을 설치 활용하고 있음.
- 차도가 자연석으로 깔아놓은 도로가 많으며 상점의 천막 지붕은 주식품의 색깔과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점앞에 의자와 식탁을 진열 손님이 일광욕을 즐기면서 한가롭게 차나 음식을 먹고 있는 곳이 많았음.
- 시내버스 승강장은 4면이 유리로 되어있고, 의자와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으며, 상점앞 차도에는 물건을 상하차 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선이 그어져 있음.
- 시가지 주변에는 휴지나 담배꽂초와 개의 배설물이 영국보다 많은 느낌이 들고 있으나 청소차로 세척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거리 전부를 물청소를 하기 때문에 기분이 상쾌하다는 느낌이 들었음.

□ 기 타

- 파리는 문화 유적을 잘 보존하여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가꾸워 놓은 것은 물론 사람을 먼저 중시하게 생각하고,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장기적 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으므로 파리의 신시가지 “라데팡스”는 세계적인 도시계획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함.
- 상제리 거리의 인도에 화강암으로 깔아놓은 보도는 2년에 걸쳐공사를 하였다하며 150년을 지탱할 수 있다고 함.
- 주변의 환경과 잘 조화하여 조성한 무성한 마로니에 가로수와 가로등, 신호등은 보행자를 위하여 독특한 모양으로 설치 되어있고, 시민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인 광장과 공원이 많으며 공원에는 조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벤치에서 일광욕을 즐기면서 독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야간에 에펠탑의 조명과 세느강의 관광 유람선은 파리를 상징하며 한쪽의 그림과 같다는 느낌이 들고 파리에 들린 관광객은 누구나 이곳을 찾는다고 하며, 국민성은 낙천적이고 유행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패션의 고장이라고 함.

3. 스위스

□ 일반 현황

- 공식 국명 : 스위스 연방공화국
- 면 적 : 4만 1,200 km²
- 인 구 : 700만명(주리히 38만명)
- 공 용 어 :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 종 교 : 카톨릭교, 크리스트교
- 화폐 단위 : 스위스 프랑
- 1인당 GNP : 40,000\$

□ 역 사

- 아름다운 경치에 둘러싸인 스위스는 알프스 산지의 중앙부를 차지하는 내륙국이며 국토의 약 절반을 높고 험한 알프스 산맥이 차지하고 있음.
- 스위스는 옛날 여러 나라의 영토였으며 13세기경에 와서는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다가 13세기말부터 독립운동이 일어나 많은 주가 독립하였고, 1874년에 22개 주가 모여 연방 공화국을 이루었음.
- 1815년 스위스는 어느 나라와도 영구히 전쟁을 하지 않으며 어떤 전쟁에도 결코 가담하지 않는다는 영세 중립국이 되었고 국제 적십자사 본부가 있음.

□ 시가지 모습

- 주변이 초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벽의 색깔은 흰색이 많으며 도로는 아침마다 청소차가 물 청소를 하여 깨끗하고 도로 넓이는 협소한 편이나 차량 소통은 잘 되고 있었음.
- 시가지 중심에서도 상쾌한 기분이 드는 것은 산에 눈과 호수, 초원이 많고 맑은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이며, 휴지는 눈에 띄지 않으며 개의 배설물이 도로변 가장자리에 배설해 놓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음.
- 주택 베란다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을 볼 수 있고, 주택 도로 모퉁이에 쓰레기 분리 용기가 놓여져 있으며 자기차에 쓰레기를 싣고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었음.

□ 기 타

- 시계 부속 가내 수공업이 발달하였으며, 각종 보험을 비롯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잘 되어 있으며, 양로원은 무료이고, 우리 나라 입양아가 8,500명 ~ 10,000명에 이른다고 함.
- 국제 금융의 중심지이며, 경지는 국토의 10%에 불과하여 농산물의 자급자족이 30%이고, 70%는 외국에서 수입 중당한다고하며, 알프스 산악까지 목장이 만들어져 있고 목초가 잘 자라기 때문에 낙농업이 발달하였음.

4. 이 탈 리 아

□ 일 반 현 황

- 공식 국명 : 이탈리아 공화국
- 면 적 : 30만 1,000 km²
- 인 구 : 6,000만명(로마 350만명)
- 공 용 어 : 이탈리아어
- 종 교 : 카톨릭교
- 화폐 단위 : 리 라
- 1인당 GNP : 18,000\$

□ 역 사

- 지중해 대륙으로부터 한가운데로 장화 같은 모양으로 돌출한 반도와 시칠리아섬, 사르디니아섬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옛부터 “빛나는 태양의 나라”로 동경의 대상이 되었으며,
- 기원전 509년에 이탈리아 라틴인이 에트루리아인을 멸망시키고 로마 대제국을 건설하였으며, 한때 18세기말에 나폴레옹이 지배하였으며, 19세기 후반 이탈리아 반도에 나누어져 있던 작은 나라들이 합쳐서 이루어진 나라가 지금의 이탈리아임.
- 이탈리아는 로마 카톨릭교의 중심지이며 바티칸시국에는 로마 교황청이 있고, 교황은 세계의 카톨릭교 신자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시가지 모습

- 기후는 우리 나라와 비슷하고 가로수는 소나무와 부서진 성벽이 많으며 도로는 돌로 포장되어 있고 소방 도로는 일방통행이 대부분임.
- 거리에는 교통순경이 눈에 띄지않고 아무 곳에서나 길을 건너도 차가 경적을 울리지도 않고 일단 멈춤하여 사람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려 주고 있으며 차는 소형차가 대부분임.
- 시가지에는 보통 80년 ~ 500년 된 옛건물이 많고 거리가 우중충하게 보이는 것은, 옛것을 보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건물 도색을 하지않는다하며 휴지나 개의 배설물이 많이 있음.

□ 기 타

- 산에 돌과 석회암이 많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지 않으므로 기후와 풍토에 적합한 올리브 나무가 과수원과 같이 식재되어 있으며 열매는 식용 기름과 나무는 가구를 만든다고 함.
- 지하에 대리석이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은 낡았어도 내부는 대리석으로 대부분 치장되어 있어 깨끗하고 황홀하다는 느낌이 들고 겉치레보다 내면을 더 중시한다고 함.
- 로마시 전체가 역사 문화의 고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관광객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하루에 5만명이 몰린다고 함.

Ⅲ. 분야별 연수내용

1. 의회 분야

- 이탈리아 티볼리시 의회제도 -

□ 현황

- 인 구 : 52,000명
- 의 원 수 : 31명 (여성 의원 15명)
- 임 기 : 4년 (주민 직선제)
- 의장 및 부의장 : 각각 1명
- 회 기 : 4년 임기중 1년 반을 출무함
- 보 수 : 무보수명예직(출무수당 1일 3만리라)
- 상 임 위 원 회 : 6개 분과위원회
- 제 정 규 모 : 연간 예산 600억리라

□ 조직 및 기능

- 1948년에 주를 설치 전국에 20개주가 있으며 주 밑에 도가 있으며 95개 도가 있고 도 밑에 시·읍·면이 전국 8,070개가 있음
- 시·읍·면의 지위는 동일하고 획일적인 일을함
- 요일별로 근무시간이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
 - 월, 수, 금 : 오전 근무
 - 화 목 : 오후까지 근무
 - 토 일 : 근무 안함

- 시·읍·면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되며 국가의 하급 행정기관이며 도지사의 감독 하에 병적부와 선거인 명부를 작성 관리하고 치안 등에 대한 책임을 짐
- 의장이 시장을 겸직함
- 6개분과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 행정 위원회
 - 재정 위원회
 - 교육 위원회
 - 문화 위원회
 - 건설 위원회
 - 치안 위원회
- 의원은 주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되며 의원 수는 시의 규모에 따라 15~80명을 뽑을 수 있음
- 임기는 4년이며 선거 제도 및 입법 기능은 국가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 의원31명중 17명을 집행위원으로 선출 운영되고 있음
- 의회에서는 예산 결산, 재무, 경찰, 건축 규제, 직원의 급여와 인사 및 시·읍·면의 사업 등에 관한 의안을 심의 의결함
- 사무국 직원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 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함

2. 환경 분야

- 파리 하수 처리장 -

□ 하수처리장의 역사

- 중세기 파리의 음용수는 세느강을 이용하였으며 하수는 들판이나 비포장도로에 살포함으로서 자연적으로 여과된 물이 다시 세느강에 흘러들어 갔었음
- 1200년경 Philippe Auguste가 파리의 거리를 포장하면서 배수 시설을 설치하였음
- 1370년 파리 시장 Hugue Aubriot는 “Rule Monmartre”에 둥근 아치형의 석벽하수도를 건 설하여 하수를 차집해서 Menilmontetant까지 이송하여 들판에 살포 처리하였음
- 루이14세 통치기간중 거대한 원형의 하수처리 시설을 세느강 오른쪽 재방에 설치하였으며
- 나폴레옹1세때 파리 최초로 30km의 아치형 하수처리 망 설치함
- 1850년 Baron Haussmann과 기사인 Eugene Belgrand가 현재의 파리 하수도와 상수도 공급망을 설계함
- Eugene Belgrand는 식수 보관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거대하게 설계한 하수처리장은 파리 시내의 모든 하수는 의무적으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야 한다는 법규정을 만들게 한 원인이 됨

- 1878년 600km에 달하는 하수처리장 설치
- 1914년부터 1977년까지 1,000km이상의 새로운 하수
망을 설치
- 1935년 향후50간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산업 하수처리도 병행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 1970년말 유럽 최대의 하수처리장이 됨

□ 시설 규모 및 처리 용량

- 하수관 총연장 : 2,100km
- 하수관 내부 시설
 - 식수와 비식수용보관
 - 압축 공기 파이프
 - 전화선, 기송관
- 처리 용량
 - 최 대 용 량 : 1일 2,000,000m³
 - 현재 매일 유입량 : 1일 1,200,000m³
- 종사원
 - 500명
- 하수처리장 방문객
 - 1 일 방문객 : 600명 정도
 - 1인당 입장료 : 40프랑

□ 처리 방법

- 처리 시설의 하수관로는 합류 식이며 별도 악취 제거 시설은 없음
- 처리는 박테리아 번식법 및 열처리 과정을 거쳐 완전 정수함
- 각 가정에서 1차 자체 정화를 거쳐 약22,200개의 하수로로 유입되어 중앙 처리장의 통제에 따라 4개의 선으로 연결 최종 처리장에서 처리
- 각 관마다 하수구 분리 시스템을 운영함
- PC프로 그림을 이용한 온라인 아날로그 제어를 하고 유입 하수에 대한 측정 항목은 온도 DH 유기물 농도 NH₃-N Do Conductivity등이며 홍수 시에는 일정량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 나머지 우수는 세느강으로 방류하며 방류시 Do가 1.5mg/ℓ 이면 기계적으로 O₂를 강제 주입하여 방류하는 것이 특색임

□ 쓰레기 처리

- 매년 15,000m³고체 쓰레기를 처분하여 에킬라소공법에 의하여 소각함

□ 기타 사항

- 하수처리장내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하수처리 시설의 역사와 시설 운영 상태를 방문객에게 영상으로 소개함
- 하수도별 고유 번지수가 부여되어 있어 어느 가정에서 폐수가 흘러 보내는지 하수로를 통하여 올라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함

- 스위스 쥬리히 쓰레기 소각장 -

☐ 쓰레기 소각장 역사

- 1898년 Hardbof에서 Meat-Meal회사 창설
- 1904년 Josefstrasse쓰레기소각료 시운전
- 1978년 시간당 44t비율의 열을 내는 “Martia”소각료 가동
- 1992년 Josefstrasse DENOX공장 가동
- 1993년 가스청정기를 갖춘 DENOX공장 가동

☐ 운영 주체

- 개인 회사

☐ 시설 규모

- 부 지 면 적 : 3,500평
- 연 건 평 : 2,000평
- 쓰레기투입구 : 12개소
- 종 사 원 : 410명
- 관 리 인 : 40명
- 미화요원 : 370명

☐ 쓰레기 발생량

- 년 간 : 360,000t
- 1 일 : 1,000t
- 연간 운영비 : 200만 프랑 (한화 12억원)

☐ 처리 용량

- 1일 소각 가능 용량은 1,440t임

□ 쓰레기 수거 방법

- 각가정에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있는 분리수거통에 투입하면 동사무소 별로 배치되어 있는 미화 요원이 매일 07:00 ~ 17:00까지 수거하며 또한 시민이 직접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져가서 입구 계량기에 무게를 달아 투입료를 지불하고 쓰레기 투입구에 투입하고 있었음
- 완전 분리 수거 제도가 생활화되어 있으므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규격에 맞게 포장 분리수거통에 투입하고 있으며 분리 수거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금250프랑을 부과한다고 함

□ 쓰레기 소각

- 용광로에 불을 붙이면 계속 소각 시스템을 가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대근무조를 편성 24시간 운영하고 있음
- 소각 과정은 1단계 쓰레기 투입으로부터 시작 유해성 잔재물 발생까지 39단계로 되어 있으며 그 과정은
 - 1 단 계 → 쓰레기차에서 쓰레기 투입구로 투입
 - 2~7단 계 → 처리 단계별로 소각 용기로 옮겨짐
 - 8 단 계 → 800 ~ 1,100° 용기에서 소각
 - 9~17단계 → 자가 전기를 발생 변전소에 송전되어 일부 가정에 연료용으로 사용

- 18~25단계 → 여러 단계를 거쳐 암모니아 및 옥사이드가스와 물과 합류 1차세척 작업을 함
 - 26~34단계 → 2차물로 세척후 60° 의 수증기화 하여 굴뚝으로 뽑아 내보냄
 - 35~39단계 → 소각된 잔재물 분류 작업
- 쓰레기 1,000t소각 잔재물 발생량
 - 77%인 770t은 소각되어 수증기로 되어 없어짐
 - 20%인 200t은 무독성 일반잔재물로 남기 때문에 아스팔트용건설재료로 사용함
 - 3%인 30t은 유독성 잔재물이므로 깊은 산속에 매립 (찍는데 1,000년이 걸린다고 함)

□ 기타 사항

- 자가 전기를 발생 변전소에 보내어진 전기는 주리히시 민10%인 30,000명이 난방 및 취사용으로사용할수 있다고 함
- 모든 물건은 사용후 쓰레기로 남는 다는 인식 때문에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하며 알미늄캔은 압축 재생 공장으로 보내어지고 밧데리는 85%를 재충전 사용한다고 함
- 96년말까지 한국인이 2,500명이 방문하였다고 하며 일손을 빼앗기 때문에 20명이상 단체가 방문하였을 경우 400프랑을 받는다고 함

3. 사회복지분야

- 영국 경로 수녀회 -

☐ 경로 수녀회 역사

- 위치 : St Peters Residence 2A Meadow Road
South Lambeth London Swg1QH
- 1839년 프랑스 Brittany에서 살고 있는 Jeanne Jugan은 어느 날 길거리에서 눈이 멀고 반신불수인 할머니를 발견 도와주므로서 경로 수녀회설립의 시초가 되었음
- 1851년에 프랑스로부터 영국에 양로원이 들어왔음
- 1863년 Paragon으로 부터 현재의 위치인 Meadow Road로 옮겨짐
- 1984년 옛건물이 파괴되어 새로 건축하였음
- 본 양로원은 130년을 넘게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음

☐ 운영 주체

- 종교 재단

☐ 시설 규모

- 부지면적 : 4,500평
- 연 건 평 : 3,200평 (4층)

- 수용할 수 있는 인원 : 88명(현재82명수용)
 - 보조를 요하는 수용자 : 63명
 - 독립적으로 취사 수용자 : 25명
- 종사원 : 83명
 - 무료 봉사자 (수녀) : 19명(각국에서 차출되어 온 나
이 많은 수녀)
 - 유 료 종 사 원 : 64명
-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승강기를 갖추고 있음
- 62개의 방마다 화장실이 딸려 있음
- 긴급시 간호사를 호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음

□ 편의 시설

- 공간이 넓은 라운지
- 쾌적한 대식당
-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
- 다목적용 회관 (영화실, 오락실)
- 외과의료실, 물리치료실, 지압실
- 차를 마실 수 있는 차방
- 중앙 주방 및 각층별 간이주방
-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작업실

- 도서실, 이발 및 미용실, 목욕실
- 사물함을 넣을 수 있는 사서함
- 드라이클리닝을 할 수 있는 세탁실
- TV, 피아노, 유료 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휴식실
- 외출용 소형 버스

□ 시설 운영비 조달 방법

- 정부 기관에서 보조가 없으므로 처음에는 양로원에 종사하는 수녀들과 수용자들이 구호금을 모금하여 운영하였으며
- 그러다가 연금 재도가 생기고 부터는 이곳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의 연금
(20년 전부터 정부에서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의 연금을 양로원에 직접 교부하고 있음)
- 수용 노인들의 출신 지역 도단위 기관에서 1주 1인당 240파운드씩 보조해 주는 보조금
(240파운드 중 20%를 공제 개인에게 나 누워 주고 있음)
- 기업들이나 세금을 많이 내는 봉급자들이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하여 기부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음

□ 기타 사항

- 운영비 부족으로 폐쇄하는 양로원이 많으므로 이곳 양로원의 빈자리가 생길 경우 서로 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채워진다고 함
- 노인들이 한번 수용되면 본인이 나가려고 희망하지 않는 한 이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으며 사망시 양로원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함
- 노인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시설내 수공업 작업실에서 장난감 수공예품, 뜨개옷을 제작 판매하여 그에 따른 이익금은 노인 자체 복지시설에 사용한다고 함
- 우리 나라에도 경로 수녀회를 운영하고 있음이 이곳에서도 알고 있었음
- 청주 상심 양로원
- 수원 평화의 모후원

4. 관광분야

- 관광 자원 개념 -

- 런던은 산이 없으면서도 많은 숲을 이루고 있으며 옛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것 외에는 인위적으로 없애지 않고 잘 보존하고 있으며 대륙으로 진출 세계 각국의 문화 유물을 수집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파리로 런던과 마찬가지로 문화 유적을 잘 보존하고 세계 각국의 문화 유물을 수집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확트인 도로망과 하나의 시설을 설치 할때도 파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입안한다고 하며 세계적인 도시계획 교육장으로 명성이 높음
- 스위스는 산과 자연 경관을 잘 이용한 아름다운 초원과 목장 그리고 산의 설경과 케이블카 호수가 잘 조화되어 국토 전체가 상쾌한 관광지라는 느낌이 들고 있음
- 고대 로마 제국시대에 유럽을 제패한 로마는 문화 유적이 웅장함은 물론 로마 전체가 문화 유적으로 둘러쌓여 있고 카톨릭 총본산인 바티칸시국은 하루에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이 5만명이 몰려든다고 하니 세계적인 관광지임이 두말할 나위도 없겠음

- 관광 명소 -

영국 (런던)

☐ 트라팔가 광장

- 영웅 벨슨재독은 스페인의 남쪽 트라팔가 해전에서 전사한 외눈, 외팔이의 용장으로 세계사에 이름을 떨친 해군재독임
- 중앙에 높이 솟은 기념비는 높이 약 51m이며 그 위에 세워진 재독상은 5m임

☐ 국회 의사당

- 템즈 강변에 있는 영국의회정치의 전당으로 이전에는 왕궁이었던 곳이며
- 현재의 건물은 1852년에 세워졌고 북으로 시계탑, 남으로는 빅토리아 탑이 솟아 있음

☐ 하이드 파아크 공원

- 세계적으로 유명한 런던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면적이 80만 평임
- 17세기경 헨리 8세가 왕실 수렵장으로 사용하였던 곳으로 웨스트민스트 사원의 정원이었음
- 지금은 시민의 휴식처로서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 곳으로 호수와 울창한 수목과 산책로 등이 있으며 국왕에 대한 비방만을 제외하고는 어떤말도 허락되는 자유로운 웅변장소라고함

□ 타워브리지

- 대영제국의 전성기인 1894년에 템즈강에 설치된 전장 270m의 고딕풍탑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다리임
- 개폐식 다리 항구 활동이 왕성할 때는 하루 30회 이상 열리고 닫혔으나 지금은 하루에 한두번 정도 개폐된다고 함

□ 버킹검 궁

-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궁전 1837년 빅토리아 여왕의 주거지가 됨
- 궁전 앞 광장에는 빅토리아 여왕의 기념탑이 서 있고 근위병의 교대식은 매우 유명하며 여왕이 궁전안에 있을 때는 건물정면 로얄스탠드에 영국 기가 나부낀다고 함

□ 대영박물관

- 파리의 루우브르 박물관과 함께 세계 최대의 고대 박물관으로 손꼽힘
- 루우브르 박물관은 미술품 위주로 수집되었다면 대영 박물관은 학술적인 고서적이 수집되었다고 하겠음
- 이 박물관은 1753년 의사 슬로온경의 고서 8만점과 미술품 기증으로 1759년에 개관을 시작하였다고 함
- 특징은 자기 나라의 것은 거의 없고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것으로 전시되어 있으므로 관람료는 받지 않고 있음

프랑스 (파리)

□ 개선문

- 나폴레옹 1세때 마르크라의 설계로 1806년에 착공하여 30년후에 완성되었으며 높이는50m, 폭은45m임
- 개선문이 있는 광장은 12개의대로가 방사선으로 뻗어 별모양의 광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 그랑테 알세

- 덴마크인 오토 폰 스프예케슨이 1928년에 설계했지만 완성된 것은 1989년 7월 나폴레옹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탑으로 높이는 105m임
- 중앙에 대리석이 서로 마주보고 커다란 글라스의 화재 방지는 “구름”의 별명이라 불리며 4대의 승강기로 탑을 오름

□ 앵바리드돔

- 1706년에 건축된 클래식 양식으로 간소하고 독특한 이 건물은 4각의 설계도 위에 세워진 2개의 양식으로 건축되었으며 첨탑 높이는 지사에서부터 107미터 임
- 1821년 5. 5 나폴레옹은 세인트헬라나섬에서 죽었으며 1840년 9월에 이곳에 묻혔음

□ 베르사이유 궁전

- 파리 남서쪽에 위치한 베르사이유 궁전은 태양 왕이라고 불려지던 루이14세의 절정기에 그 부와 권력을 결집하여 20년에 걸쳐서 완성한 궁전임
- 궁전을 둘러싸고 있는 정원은 100ha에 달하며 전형적인 프랑스 정원의 걸작품으로 그 아름다움은 이루 형언 할 수 없음

□ 퀘상부르 공원

- 작은 숲속 드넓은 대지에 분수가 있고 각종 조각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원 둘레에는 조깅 코스가 있어 조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음
- 소란스러운 사람과 차의 흐름에 숨겨져서 평화의 오아시스라고 불려지며 이곳 공원 내에 오리지널인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 자오선이 이 공원을 지나간다고 함

□ 퐁피두 센터 (보브르)

- 1977년 1월 31일 지스칼 데스탕 대통령에 의해 오픈된 건물로 외벽은 노출되어 종횡으로 달리는 파이프라인은 기능별로 색분되어 청색은 에어컨, 황색은 전기, 적색은 수송, 녹색은 수도 시설을 나타내고 있음
- 이 근처에는 분수와 광장이 있고 광장에서는 광대와 스프레이로만 그림을 그리는 무명 화가의 그림이 인기가 높음

스위스 (쥬리히)

□ 쥬리히시

- 국제 금융의 도시로서 인구는 약 38만 명이며 시가는 쥬리히 북단의 리마트강 그 남쪽의 실강 언변에 걸쳐 발달되었음
- 이 도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잘 가꾸어진 깨끗한 도시 환경 및 시내 중심을 가로질러 있는 리마트강은 깨끗하고 아름다웠음

□ 루체른시

- 필라투스산 : 루체른 시가지 남쪽 15km지점에 있는 표고 2,132m의 산으로 눈이 뒤덮여 아름답고 전망이 뛰어나며 1,415m까지는 4인승 케이블카로 1,415m부터 정상까지는 40인승 케이블카로 운송함
- 사 자 상 : 울창한 나무 숲속에 빈사 상태의 석상으로 된 사자가 누워 있으며 덴마크의 조각가 토르발센의 작품으로 1792년 8월 10일 파리의 킬리르 왕궁에서 루이16세 일가를 몸으로 지켜 주다 전멸한 786명의 스위스 용병을 기념하여 세워진 것임
- 카펠교 :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긴 나무다리로서 1333년 완공 길이는 200m, 대들보에는 112장의 삼각형 널빤지 그림이 걸려 있으며 루체른의 상징임

이탈리아 (로마)

□ 원형 경기장

- 고대 로마 시대에 황제였던 메스파시아누스의 명에 의해서 건설되었으며 원형극장점 투기장이었음
- 황제의 명에 의하여 준공을 기념하는 행사가 100일간 계속 되었으며 최대 5만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며 관중석은 사회계층에 따라 맨 아래층에는 황제, 원로 의원들 2층에는 무인계급, 3층에는 로마 시민권 소유자 맨윗층에는 일반인들과 여자들의 자리였다고 함

□ 베드로 성당

- 16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미켈란젤로의 설계에 의해 건축된 것이며 정면 중앙의 발코니에서 교황은 광장에 모인 신도들을 향하여 강복을 함
- 대리석 기둥들 사이로 5개의 문이 있고 맨 오른쪽의 문은 성문으로 성년에만 열린다고 하며 미켈란젤로의 대리석 조각품인 “피에타”가 이 성당 안에 있음

□ 바티칸 시국 및 박물관

- 바티칸 시국은 모든 것이 종교적, 예술적, 세계 최소의 독립국이며 1377년 교황 그레고리우스11세가 아비뇽유배에서 풀려난 뒤로부터 교황의 주거지가 됨
- 바티칸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므로 전부 살펴보자면 며칠이 걸리며 이곳에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 미켈란젤로가 4년 반만에 완성한 천정화가 있음

□ 빅토리오 엠마누엘 기념관

- 백색의 석조 건물은 이탈리아의 통일을 기념하여 건축가 사크니의 설계로 1885년에 착공되었으나 거의 40년이 지난 후에야 완공되었음
- 이곳에는 제1차 세계대전중에 산화한 무명용사의 무덤이 있고 그 옆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향불을 두 명의 보초가 항상 지키고 있음

□ 트레비 분수

- 1732년에 분수가 축조된 것이며 이 분수는 가로 20m 높이 26m의 폴리궁의 한쪽 벽면을 덮고 있는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수의 한가운데에는 대양의 신 오체아노가 마차에 올라타고 있음
- 전설에 의하면 목마른 로마 병정들에게 한 처녀가 나타나 물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하여 이 분수의 물은 기원전 19년에 아그리파때 축조된 처녀수로를 통하여 로마에서 약20km떨어진 곳에서 지금도 오고 있으며 뒤로 동전을 던지면 다시 로마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전설로 유명함

□ 진실의 입

- 이 진실의 입에 손을 넣고 거짓 진술을 하면 강의 신이 손을 삼켜 버린다는 전설이 있음
- 중세때 이를 악용한 일부의 영주들은 반감이 있는 사람에게 손을 넣게 하고 몰래 뒤에서 손을 자르게 했다는 얘기도 전해짐

IV. 연수 소감

□ 의회 분야

- 유럽의 의회 제도는 지방자치의 오랜 역사와 전 통속에 사람을 중시하고 국민 의식이 자치행정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적극 협조적이고 보탬이 되고 있었음을 느끼게 하였음
- 의원들은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과 연계된 일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위원회별로 편리한 곳에 모여 지역 현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의제로 삼아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임하는 것을 판단 할 수 있었음
- 의장이 시장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대립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협력 관계였으며
- 분과위원회별로 의안을 토론 심사한 것을 다시 집행위원회로 넘겨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고 있으며 만약 집행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분과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제도가 활성화되어 주민의 현안 사업을 적극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음

□ 환경 분야

-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는 차도를 자연석으로 깔아 놓은 도로가 많으며 도로 가장자리에 쓰레기 분리 수거 용기가 놓여져 있었으나 휴지, 담배꽂초와 개 배설물이 도로변에 버려져 있어 그리 깨끗하다는 느낌이 안 들었으며
- 프랑스 파리는 도로변 공간을 이용한 가로수와 화단, 보행자를 위한 가로등과 신호등, 버스 승강장, 상점 간판 등이 거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이 잘 되어 있고 아침마다 청소차가 물 청소를 하기 때문에 거리에는 먼지가 없으므로 상점 앞에는 식탁과 의자를 진열 여기에 앉아 차나 음식을 먹는 사람이 많았음
- 프랑스 파리는 세느강의 오염을 더욱더 줄이려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아무도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수질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실감케 함
- 스위스 쥐리히 쓰레기 소각장 굴뚝에서 나오는 숃털구름 같이 하얀 연기를 보고 누가 그것이 쓰레기를 태우는 연기로 생각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음

□ 사회 복지 분야

- 노인들의 문제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유럽 선진국 같이 부강한 나라도 가난하고 병들은 노인들을 국가적으로 충분한 혜택을 주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며
- 영국 같이 사회보장 제도가 잘되어 있는 나라도 연금으로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음을 양로원 운영에서도 잘 나타나 있으며 다만 양로원 수용 절차가 우리 나라와 같이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본인 희망에 따라 양로원에 수용 여생을 마칠때까지 보살피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우리 나라도 청주 성심 양로원과 수원 평화의 모후원에서도 불우한 노인을 돌보고 있으나 시설 및 국가 보조금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므로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고치고 하여 불우한 노인 수용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여야 겠음

□ 관광 분야

-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스위스 쥘리히, 이탈리아 로마는 고대 로마 시대 때 문화 유적이 많으며 도시 개발 계획으로 옛것을 함부로 허물어 버리지 않고 원형대로 잘 보존하여 관광지를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도 관광자원으로 전 도시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 영국 런던의 템즈강,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 스위스 쥘리히의 리마트강, 이탈리아 로마의 테베레강은 한결같이 맑고 깨끗하였으며 강주변은 공원을 조성 숲이 어우러져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음
- 프랑스 파리는 시가지 변에 공원 묘지가 설치되어 있었고 1개 묘지 안에 사망 순서에 따라 가족 단위로 층층이 매장된다고 하며 하나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었음
- 방문 4개국은 관광객을 위하여 별도로 편의 시설인 화장실을 무료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점은 선진국으로서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상점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토록 하여 그 상점에서 물건을 사지 않으면 안되게끔 한 것은 이것이 선진국의 행태인가 하는 느낌이 들었음

V. 시정 건의 사항

- 아무리 좁은 차도라도 인도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는 파리의 도시계획은 사람을 중시,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본받아야 할 것임
- 유럽의 문화는 옛것을 잘 보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로를 함부로 확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활용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일반 통행 도로를 많이 만들어 놓았으므로 우리 시도 시내 중심부 소방 도로를 일방 통행도로 설치 교통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하겠음
- 국민소득이 1인당 2만불 이상인 유럽의 선진국에서도 소형차를 선호하는 검소한 정신을 배워야 하겠음
- 대중이 많이 모이는 식당에서 옆자리 앉은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떠들지도 않고 길거리의 자동차는 소음 공해를 줄이려고 경적을 울리지도 않는 선진국의 시민 의식은 우리도 할 수 있으므로 시민교육화 하여야겠음
- 도로변 상점이나 관청의 정문 앞에 간판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조그마하게 설치되어 있어 간판으로 인한 거리가 혼란이 온다던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비교가 됨
- 상점 앞 도로변에 물건을 상·하차 할 수 있도록 임시 주차 선이 군데군데 그어져 있어 물건을 내리고 싣는에는 아무 불편이 없으므로 우리도 주차 선을 그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건물 하나 짓는데 수십 년에서 수백년 거리의 보도블럭을 까는데도 2년이상 걸린다 하며 공사를 하는 동안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완벽 주의를 좋아하는 유럽인의 정신이라고 하므로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임
- 도시 중심에 큰 공원과 울창한 가로수는 설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맑은 공기와 상쾌한 기분이 들게 하므로 우리도 도심지에 공원과 가로수를 많이 심고 각 가정에도 많은 나무를 심도록 권장을 하여야 겠으며 공원을 조성할 때는 공원 둘레에 조경을 할 수 있는 코스도 곁들여서 설치를 하여야 겠음
-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사원 앞 “제로 포인트 원형관”은 국내 지역과 국제도시의 거리 측정의 기점으로 소개 관광의 명소가 되어 있으므로
우리시의 가금면 중앙 탑을 국토의 중앙임을 강조할 수 있는 자료를 역사 교과서나 관광 책자에 실어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겠음
- 쓰레기 분리 수거를 유럽에서는 철저히 하므로 우리도 홍보 면에서 거리 모퉁이에 분리 수거 용기를 설치하여야 겠으며
스위스 류리히 쓰레기 소각장과 프랑스 파리의 하수도 처리장은 우리도 백년대계의 앞을 내다보고 도입하여야 할 과제임

VI. 끝맺는 말

- 우리 충주시의회는 선진 유럽의 지방자치 및 의회 분야 환경 분야, 사회복지 분야, 관광 분야를 연수하기 위하여 지난 '97. 3. 26 ~ 4. 4일까지 9박 10일간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유럽4개국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 말만 들어오던 유럽의 선진국의 모습과 생활 상태를 한번 둘러보고 느낀것을 우리의 시정 시책이나 시민의 생활에 보탬이 될 것인가를 체험하였으며
- 선진국이라는 부푼 기대와는 달리 그곳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 우리와 다를게 없다는 것을 역시 체험을 통하여 느꼈습니다.
- 단지 우리와 다른 것은 언어와 모습 그리고 문화의 차이로 생활하는 방법과 8 ~ 9시간이 우리보다 늦게 가는 시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몇 가지의 좋은 점을 우리 생활에 접목한다면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끼 수 있다는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이면서도 사치를 부리지 않고 소형 승용차를 운행 검소하게 살아가는 모습
- 무슨 일이든지 서두르지 않고 남을 위하여 느긋하게 기다려 주고 시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생활자세 (사람이나 차가 질서를 잘 지킴, 차가 경적을 안 울림, 쓰레기 분리 수거 철저등)

- 새것보다 현 것을 더 선호하고 옛것을 잘 보존하려고 하는 국민정신과 건물 한 채를 지어도 수백년을 건널 수 있게 견고하게 짓는 책임감
- 그러나 선진국이라 해서 다 잘된 것은 아니고 그 나름대로 문제점도 있다하겠으며 앞으로 선진국을 선호하여 해외 연수 대상국으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문화가 비슷한 나라를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 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에 연수 개선 방법을 들자면 많은 인원을 이룬 그룹 연수보다 내실 있고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의원 2 ~ 3명 이내 조별로 희망국을 직접 선정 배낭 연수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집행부 관계자와 동행 4 ~ 5명 이내로 조를 편성 연수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끝으로 선진국의 것만 선호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산천을 잘 가꾸고 보존한다면 세계 속의 관광지로 부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비록 짧은 기간동안보고 느낀 선진국의 분야별로 좋은 점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선진국 진입에 하루 빨리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진 첩

영 국 (런 던)



(국회의사당 전경)



(타워 브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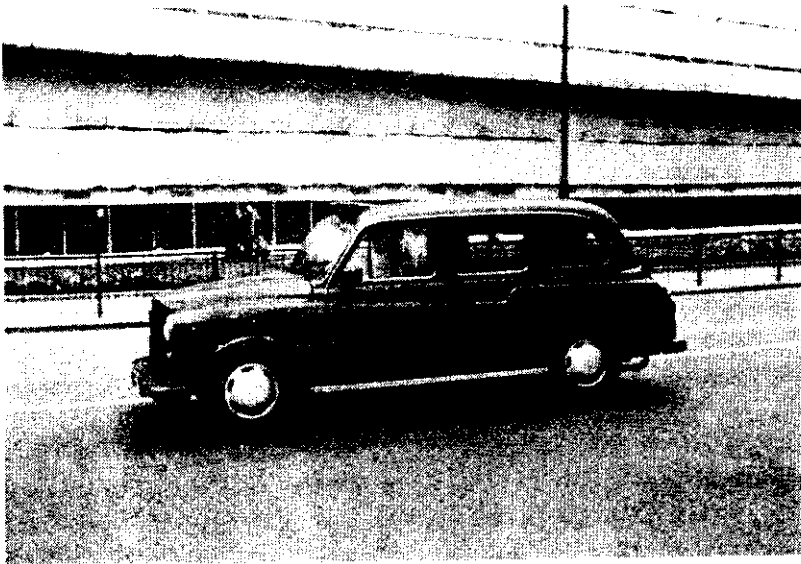
(하이드 파크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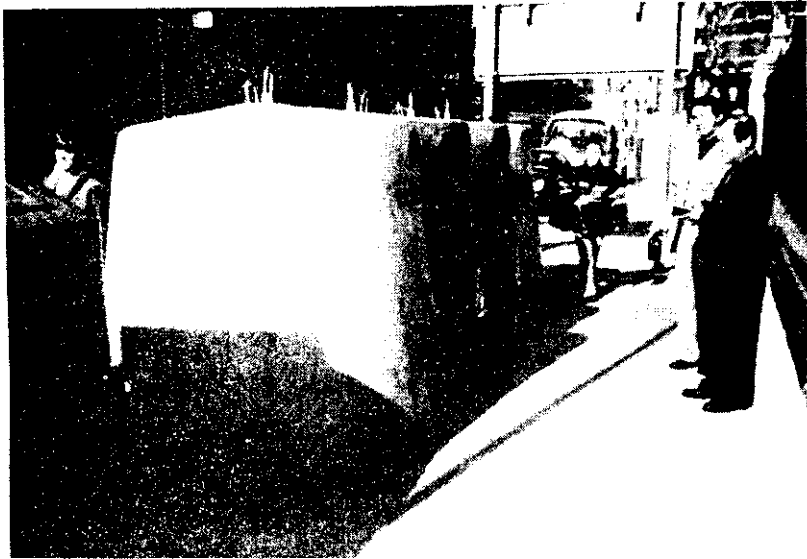
(버킹검 궁 근위병 교대식 모습)



(2층 시내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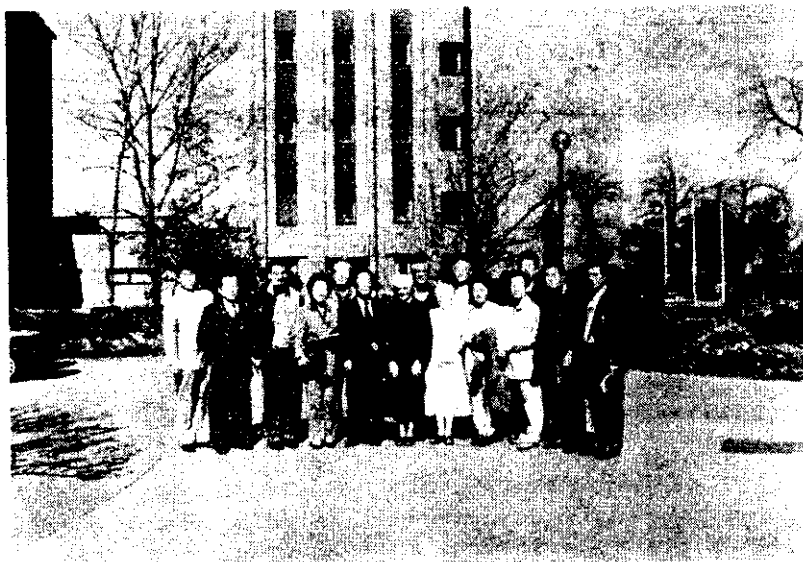
(개 인 택 시)



(쓰레기 분리 수거 용기)



(공중 전화 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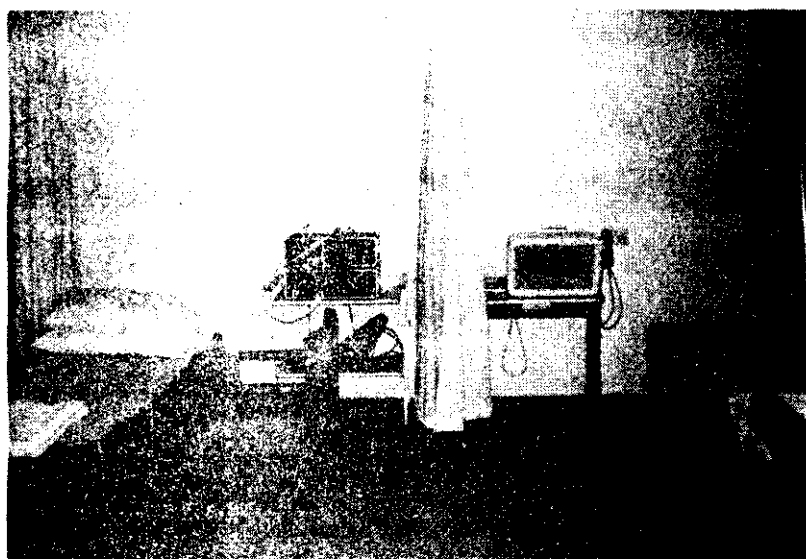
(경로수녀회에서 원장과 기념촬영)



(경로수녀회 운영상황을 청취하는 모습)



(경로수녀회 시설을 돌아보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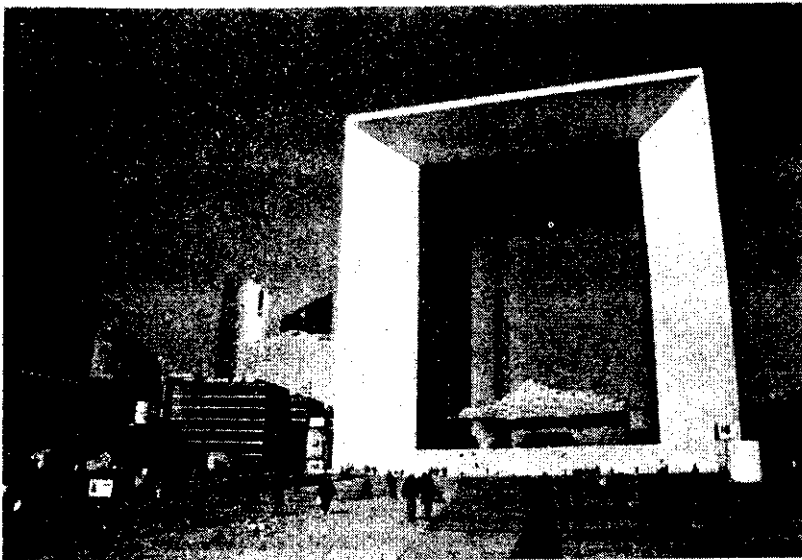


(경로 수녀회 수용자 침실 모습)

프 랑 스 (파리)



(개 선 문)



(나폴레옹 전승 기념탑으로 일명 신개선문)



(퀵상부르 공원내에 있는 오리지널인 자유의 여신상)



(신개선문 주변에 있는 공원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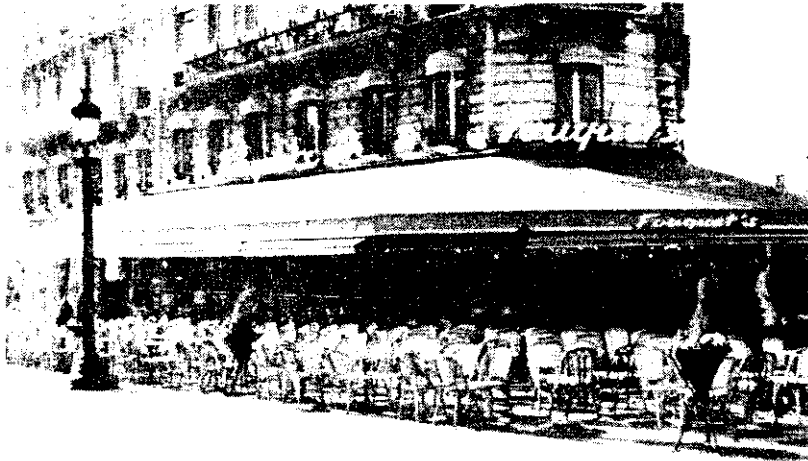
(일방통행 차도와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말끔한 시가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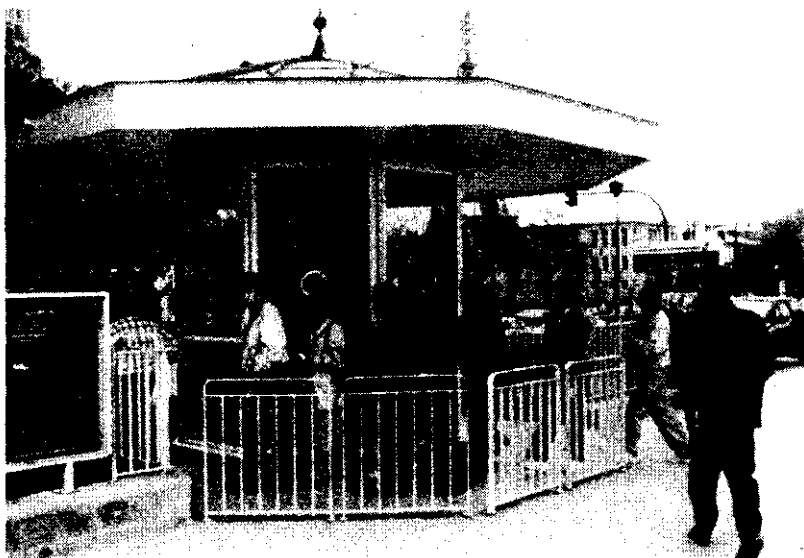
(시가지 도로를 물청소하고 있는 청소차)



(독특한 디자인의 가로등과 공중전화 박스)



(상점 앞에서 차와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진열되어 있는 의자와 식탁)



(하수처리장 입구)



(하수 처리장 내부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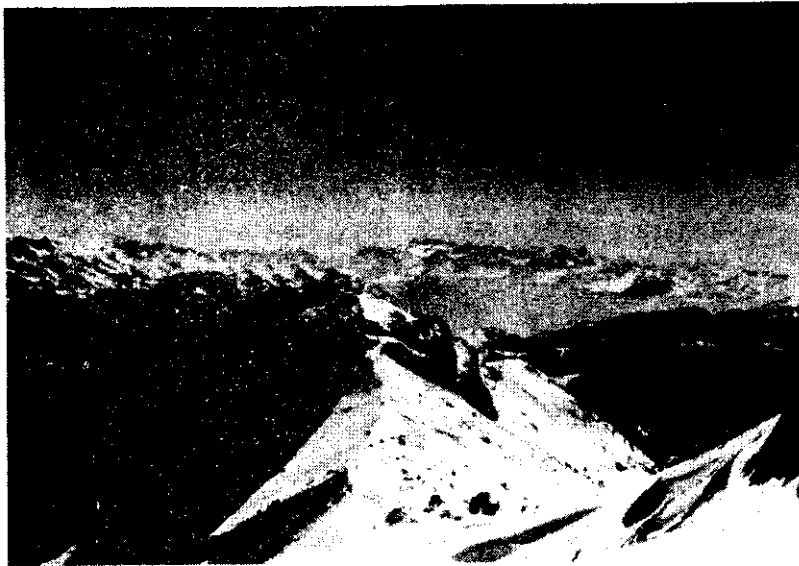


(하수처리장 시설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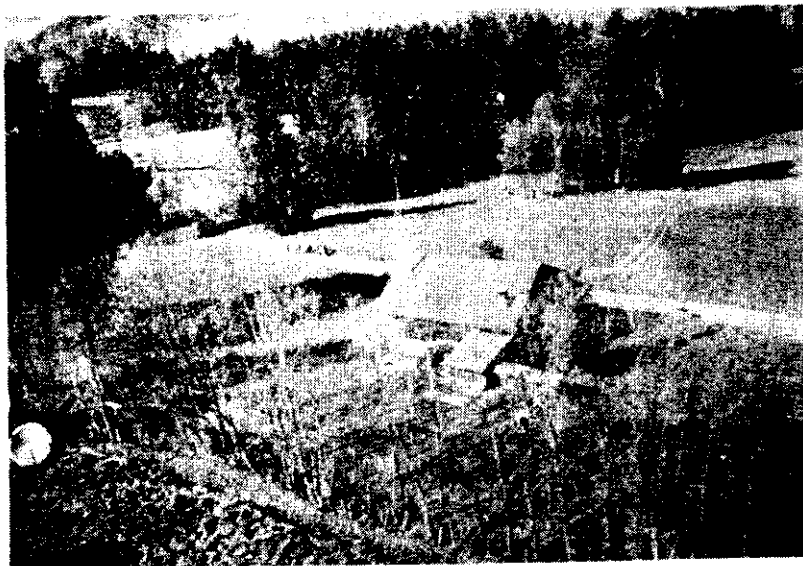


(하수도에 깔려서 쌓여있는 퇴적물을 옮기는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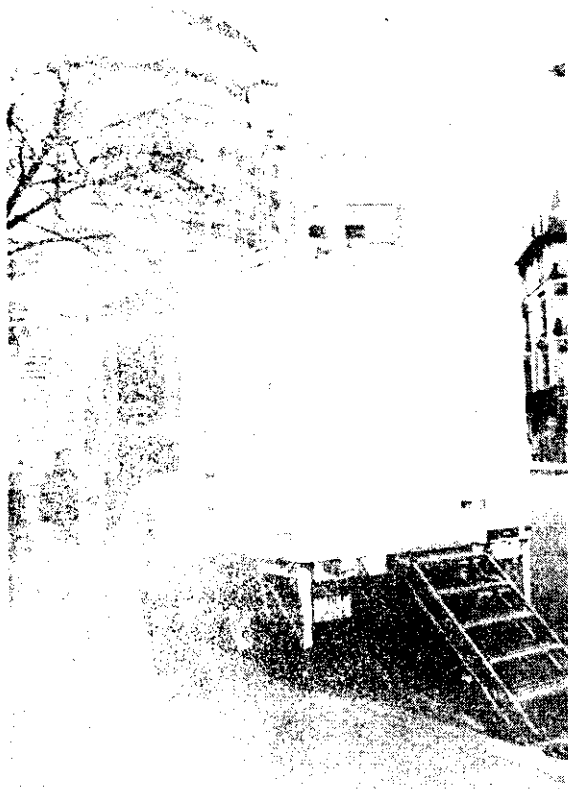
스 위 스 (쥬리히)



(표고 2,132 m 의 필라투스산의 설경)



(산림과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농촌 풍경)



(공기오염 측정기 등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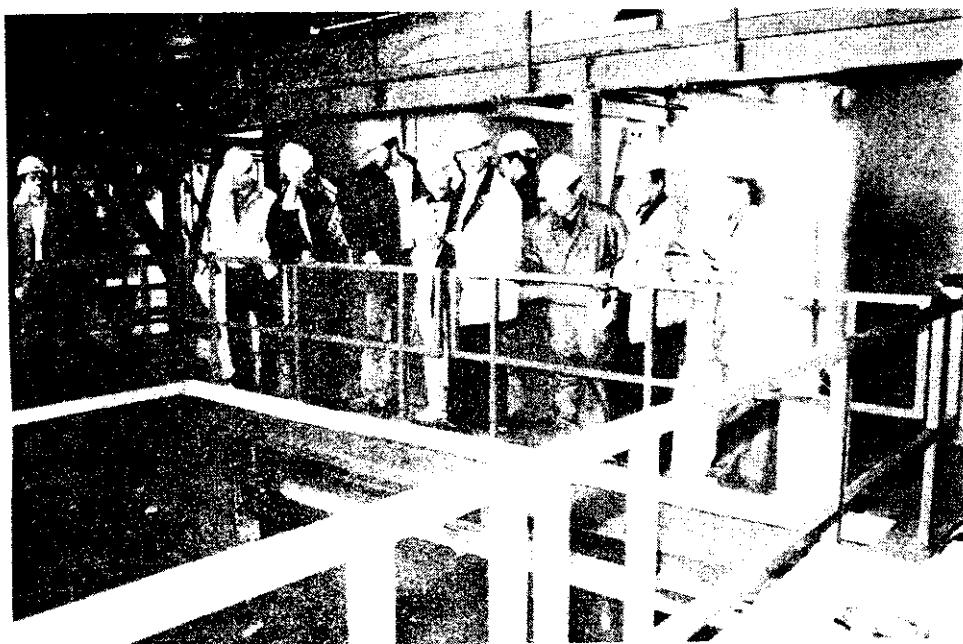
(쓰레기 분쇄기 등 시설물이 거리 모퉁이에 놓여 있는 모습)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한 연수단 일동)



(직원으로부터 시설현황을 설명 듣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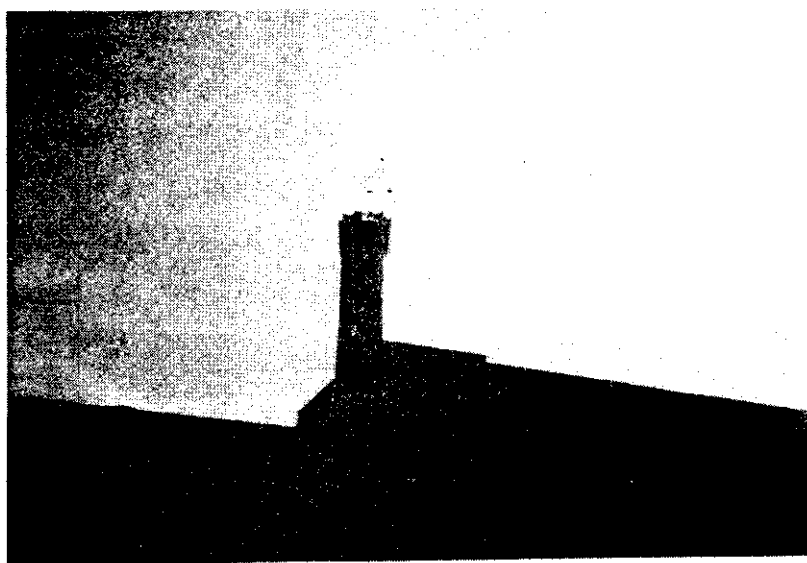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용광로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쓰레기 투입구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쓰레기 소각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흰 뭉게구름 같은 모습)



(쓰레기를 태운 잔재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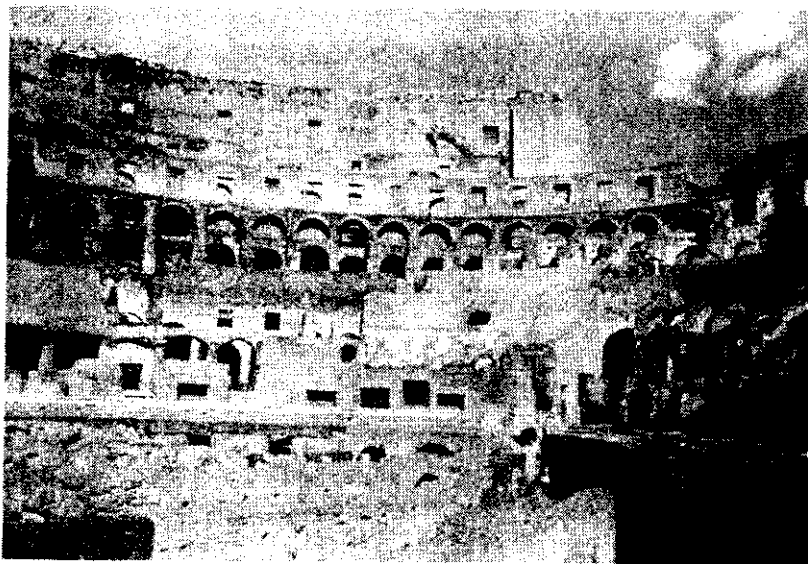


(방문 기념품을 전달하는 모습)

이탈리아 (로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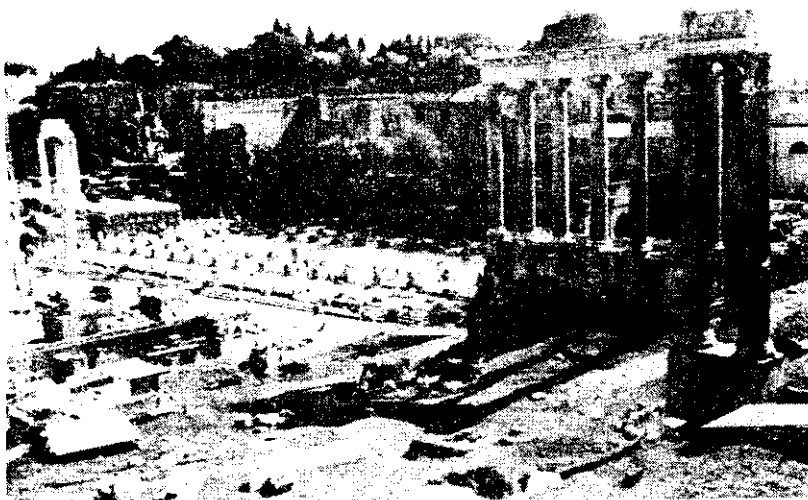
(바티칸 시국 베드로 성당)



(원형경기장 내부 모습)



(빅토리오 엠마누엘 기념관)



(구 로마시대 때 신전이 있던 곳과 그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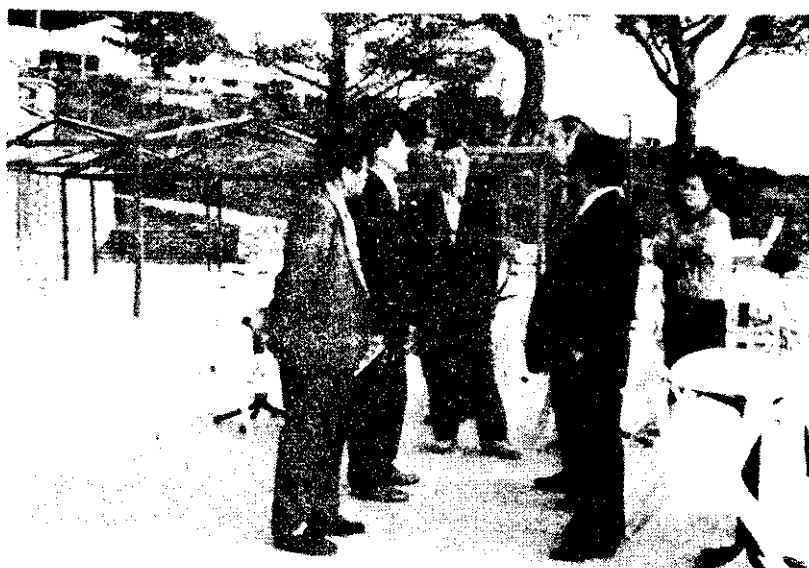
(도로변의 가로수 모습)



(소형 승용차)



(신록대기에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는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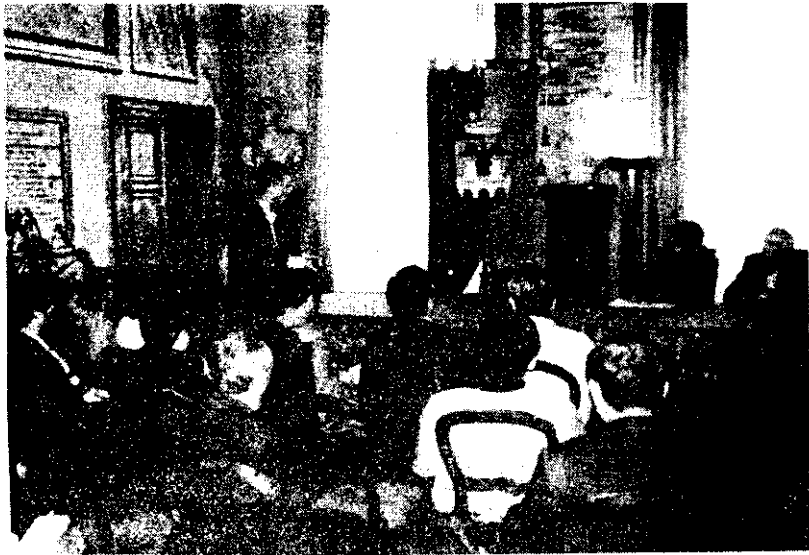
(저녁 식사후 식당주인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의장실을 둘러보고 설명을 듣는 모습)



(방문 기념품 전달하는 모습)



(티블리시의회 운영 상황을 청취하는 모습)



(의사당을 둘러보는 모습)